‘환경성 지표’ 꿀벌, 광주서도 사라졌다

96가구 1만6500 벌통 중 8700통 텅 비어
봄 개화기 꿀벌가격 올라 채우기도 힘들어
양봉협 광주시지회장·대의원 등 16일 대책회의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의 한 양봉농가의 벌통 수십개가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다. 〈한국양봉협회 광주시지회 제공〉

광주에서도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양봉농가에서 절반이 넘는 꿀벌이 집단폐사하거나 사라졌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대책마련과 양봉업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한국양봉협회 광주시지회는 오는 16일 광주시지회 지회장, 각 지부장, 대의원 등 임원들이 모여 꿀벌 폐사(벌집군 붕괴 현상)·사라짐 현상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지회는 최근 수년새 꿀수확량이 평년의 35% 미만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갑작스런 꿀벌 폐사현상(봉군 붕괴현상)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꿀벌 피해 현황을 직접 조사했다.

광주시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농가는 총 96가구(동12, 서9, 남 22, 북 36, 광산구 16가구)이다. 이들 농가에서 총 1만6593통의 벌통을 사육중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8718통의 벌통에서 꿀벌들이 집단폐사 하거나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벌통 하나에 보통 벌집 10개 정도가 들어간다. 벌통 하나당 3~4만 마리의 꿀벌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최소 3억만 마리 이상의 꿀벌들이 없어진 셈이다.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서 10여년간 양봉을 해온 정병수씨는 사육하던 130통의 벌통에서 8통만이 남았다. 남은 8통에 남은 벌이라도 살리기 위해 꿀벌들의 먹이인 ‘떡밥’을 붙여놨지만, “남은 꿀벌 조차도 시원찮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보통 3월 25일께 꿀을 따러 벌통을 이동하곤 했는데, 올해는 8통의 남은 벌통을 가지고 꿀채집을 나갈 수 없어 빈통을 정리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봄철 꿀벌가격(4만마리 기준 13여만원→30여만원)이 올라간 점도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가격이 배 이상 올라 사라진 벌들을 채워 넣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벌꿀 생산은 5~6월에 집중되는 한철 농사이지만, 당장 채집에 나설 꿀벌들이 없어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김종팔 양봉협회 광주시지회 북구지부장은 “전남지역은 지자체별로 이미 현황조사가 끝나고 지원예산까지 어느정도 잡혀 있지만, 광주지역은 아직 지자체 차원의 실태 파악도 못한 실정”이라면서 “양봉농가의 피해 파악과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꿀벌 사라짐 현상은 양봉 농가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꿀벌이 사라질 경우 수분을 통해 열리는 열매가 줄어들고 연쇄적인 생태계 교란과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꿀 사라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응애’라 불리는 진드기, 방제의 오남용, 기후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정년기 꿀벌동물병원 원장은 “ 우선 꿀벌은 기상변화에 민감하다”면서 “지난해 유달리 진드기 발생이 많아 방제를 한다고 약제 처리 과정에서 여왕벌이 월동벌 산란 시기에 산란을 하지못해 벌이 차츰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도 지난 1월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양봉농가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꿀벌의 생태는 기후변화와 진드기, 방제 오남용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의 공동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청소행정혁신 민·관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

광주시 동구가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사업’ 공모에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동구는 국비 2억2000만 원을 확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한다.

이동식 가게가 자원순환마을을 돌며,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동구는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2022년 민·관협치 자원순환형 모델’을 개발, 다양한 주민참여형 청소행정 정책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위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쓰레기 투기 지역 주민참여 지킴이 운영 ▲그린 골목, 향기 나는 정원 조성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꽃)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카페 협업을 통한 1회용품 줄이기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체계) 개선 등이다.

또 청소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빈틈없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투기자를 적발하는 ‘쓰레기 투기 지역 지킴이’를 운영하고,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참여 정원을 추가로 조성해 마을(단체 또는 개인)과 관리 협약을 통해 골목정원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가뭄 단비’
오늘까지 5㎜ 안팎

14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새벽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전남남해안의 경우 14일 새벽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고,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정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다 밤 9시 전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7~13도, 최고기온은 14~17도, 15일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3~21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해안에는 바다 안개의 유입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일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가 200m 내외로 짧아 지겠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주 광주와 전남지역은 아침 기온은 0~10도, 낮 기온은 10~22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제3자 통한 객관적 조사 권익 보호
불합리 제도 개선 전문가 5명 위촉

광주 남구가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3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권고 사항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신청인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을 비롯해 주민들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및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보고권 등을 통해 사실상 집행력도 보장하고 있다.

남구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해 현직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건축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으며, 최근에는 구청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고충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다.

남구청 옴부즈만 사무실은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며,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전자민원 코너를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목포·여수·순천·나주 권역 진학지원센터 새 단장

전남교육청이 목포·여수·순천·나주 권역에 설치된 진학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학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해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쉽게 진로진학 상담을 할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입학사정관출신 대입 전문가인 대입지원관 4명을 각 권역에 배치해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진학지원센터 대표전화를 개통하고 권역별 대입코디네이터를 추가로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이동상담 전용차량을 운영, 전남 전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희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권역 별 진로진학지원센터 새 단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9년 권역별진학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연 2000건 이상의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대입정보박람회와 대입설명회 등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부터 북구청 건너편 효죽2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광주시 북구가 14일부터 북구청 건너편에 ‘효죽2’ 공영주차장을 본격 운영한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건너편인 용봉로 138번길 10에 조성된 효죽2 공영주차장(연면적 5442㎡)을 조성해 지상 3층 4단에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임산부, 경차 등 총 20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효죽2 공영주차장은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됐다.

1층은 주차장을 비롯해 주민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될 정보화교육실, 보건교육실, 놀이터, 쉼터 등으로 꾸며졌다.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는 유료,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북구는 주차장을 우선 무료로 운영하고 향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 북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주차 편의가 높아지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2년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기업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 사업목적: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중심을 위한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사업공고 및 접수: 2022. 3 ~ 4월 중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별도공고 참조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 http://gei.re.kr/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job.jeonnam.go.kr/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공고 기준일 2022년 신규인력 채용 및 예정 기업 대상
  - 1기업 1인 이상 채용 의무 확약서 작성 기업
    (사업기간 적용,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 계획 기업 지원)

※ 상기일정 및 지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수행기간 상이

- 지원분야: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지원 및 제품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4개분야)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수혜건수	지원규모 지원 금액(천원)
제품 브랜드 홍보지원	•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국·영문 카탈로그 제작 • 홈페이지, 로고, 디자인 등 • 기존 홈페이지 유지. 보수지원 • 제품광고비(언론매체 및 현수막, 신문광고, 팝업광고 등)	6	30,200
시제품 제작지원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 유망품목의 시제품관련 금형설계, 제작, 가공 등 개발 비용과 공정개선 향상지원 • 제품 및 생산성 몰드제작, 시제품 제작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 제작 관련 비용지원	10	250,000
제품인증 및 특허지원	•국내, 외 제품인증 및 특허지원에 필요한 내용	5	40,000
고용촉진 및 유지지원	•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임대 (체력환경을 위한 기구, 정수기, 커피머신 등) • 건강검진 및 복지시설 사용료 (리조트 사용 등) ※ 복지지원의 경우 사업공고 이전 기준 1년 이상 고용유지률 인원 적용 (최대 10명)	9	27,000
공통조건	지원대상 (공통부문) 전라남도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 · 중견기업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업) –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인기업 – 22년 사업공고 시점 기준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 예정 (1기업 1분야 1인이상 확약서)		

- 문의처: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1005호 / TEL. 061-331-9325
  담당자: 황 우 정 wnsvy97@gei.re.kr